



『우리는 마이너스 2야』

전안 장편소설

주 제 어: 관계, 외로움, 작은 관심, 운명, 소통

분 류: 청소년 > 청소년문학

수상 내역: 제21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작 성: 전안 작가(『우리는 마이너스 2야』 작가, 고양예술고등학교 교사)

도서 소개

우리의 관계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들의 만남은 오로지 마이너스일 뿐일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에서 홀로 지내던 세 아이가 함께하며 부족하고 미비한 존재로 느껴지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대차게 뒤집는다. 『우리는 마이너스 2야』는 스스로를 마이너스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위로를 담은 이야기이다.

관계 맺기에 서툰 미주는 아이들과 가까워지려던 욕심에 그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친구까지 잃게 된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새로운 빛이 또 찾아온다.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고, 빌린 순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데……. 학교 공식 은파 미주, 유명처럼 지내다 진짜 령이 되고 만 세아, 존재감은 두 배이지만 사교성은 마이너스인 세정까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모여 서로의 빈틈을 채워 주는 따뜻한 관계가 시작된다.

학습 목표

- 작품 속 인물을 깊이 이해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 교실에서 가장 적게 이야기해 본 친구를 알아 가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 인터뷰라는 콘셉트를 통해 당연하게 여겨 온 가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 자신의 멘토를 찾아 여러 질문을 품으며 진로와 꿈을 생각할 수 있다.

독서 준비 | 생각 열기

1. 도서 소개

- 도서의 소재 소개하기: 오백 원, 빛, 귀신, 마이너스
- 도서 제목, 표지를 통해 도서의 내용 유추해 보기.

2. 독서 방법 안내

미주, 세아, 세정 세 인물 중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의 대사, 행동 등을 중점적으로 읽어 봅니다. 주인공 외의 다른 인물도 좋습니다. 해당 인물의 인상 깊었던 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 점을 살펴보고, 각 장을 읽은 후에 서로의 소감을 나눠 봅니다.

3. 도서 소재와 관련된 '생각 열기' 게임

'오백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이야기하기.

- ① '시장에 가면' 멜로디로 '오백 원으로는'을 따라 부릅니다.
- ② 앞사람이 말한 내용을 외워서 따라 부르거나 각자가 생각한 내용을 음에 맞춰 부릅니다.
- ③ 전체 한 바퀴를 돈 후, 오백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독서 후 | 인터뷰 활동

1. 인터뷰 방법 안내

기존의 독서 지도안과는 다르게, 해당 책을 읽은 후 ‘인터뷰’ 콘셉트로 작품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학생은 인터뷰어(Interviewer: 인터뷰를 하는 사람)와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도 작성하는 다양한 인터뷰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독후 활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인터뷰어의 자세

자세한 기록

인터뷰어는 반드시 기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트 혹은 전자 기기에 기록하여도 좋고, 인터뷰이의 동의하에 녹음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활동 후에는 인터뷰 기사를 직접 작성해 봅니다.

준비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이란 인터뷰이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좀 더 심층적인 답변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터뷰이를 잘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터뷰이에 관한 정보나 관심 분야를 많이 모을수록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와의 만남 이전에 미리 질문을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경청하는 태도

반드시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인터뷰 특강』에서 지승호 작가는 “인터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좀 어눌해 보이더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과 같은 거죠.”라고 했습니다.

3. 인터뷰이의 자세

솔직한 대답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혹은 작품 속 인물을 대신하는 것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잠시 생각하고 말하기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자신의 품위를 보여 주고 새롭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답변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 있는 태도

상대의 질문이 끊어지더라도 판짓은 금물입니다. 다음 질문이 나오기까지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소통의 기본은 경청과 존중입니다.

독서 후 | 인터뷰 활동 ① 등장인물 깊이 이해하기

1. 여러분은 지금 마음카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0야』의 등장인물 홍미주, 김세아, 김세정, 박지현, 윤이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 앉고 싶은가요?

2. 위에서 선택한 소설 속 인물과 가상 인터뷰를 나누어 봅니다. 소설 내용을 떠올리며 해당 인물에게 건넬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그 인물이 되어 그의 입장을 헤아리며 답변도 작성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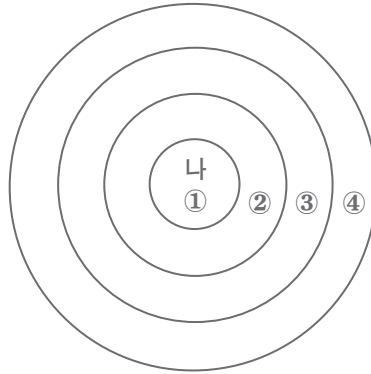
질문 예시

- 당신은 소설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나요? (인터뷰를 통해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작가는 왜 당신에게 그런 사건을 겪도록 했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말해 주세요.
- 작품의 결말까지 보았을 때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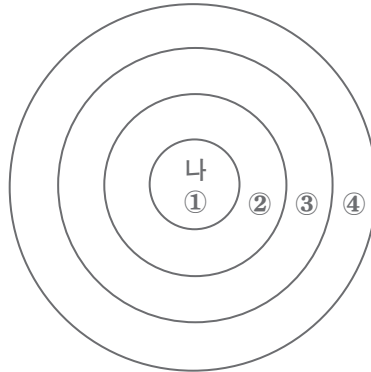
3. 나와 다른 인물을 선택한 반 친구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봅니다.

독서 후 | 인터뷰 활동 ② 교실 안에서 친밀감 높이기

1. 『우리는 마이너스 20』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아래 그림 속 '나'에 대입해 봅니다. 해당 인물과 관계가 가까운 순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거리를 작성해 봅니다.



2. 우리 반 친구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나'와 가까운 순으로 우리 반 친구들 간의 관계 거리를 작성해 봅니다.



※ 『오늘 몇 번의 동의를 구했나요?』 워크북 중,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인간관계 거리' 자료를 참고함.

3. 나와 가장 가까운 ②번 친구부터 시작하여 가장 먼 관계인 ④번 친구 순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 더 나아가 사회적인 토론을 해 보아도 좋습니다.

질문 예시

- 내가 만약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싶은가?
-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있다면, 그 이유는?
- 자신의 글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족하나요?
- 학교에 있을 때, 언제 집에 가장 가고 싶은가?
- 샤워와 방 청소 중 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선생님께 같은 반 친구더라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눠 보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낯선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보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예시로 들어 주시거나 밸런스 게임처럼 선택지가 정해진 질문을 통해 이야기의 물꼬를 터도 좋습니다.

독서 후 | 인터뷰 활동 ③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기

1. 홍미주, 김세아, 김세정은 가족에 대해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까요? 세 인물 중 한 명을 고르고, 그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가족에게 전하는 질문을 작성해 봅시다.

인물	가족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	질문

2.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멀게 느껴집니다. 나의 가족과 서로 인터뷰어, 인터뷰이가 되어 인터뷰를 주고받아 봅시다. 가족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토대로 질문을 나누어 보며 가족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봅시다.

질문 예시

- 100만 원이 하늘에서 푹 떨어진다면?
- 올해 꿈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꿈은?

독서 후 | 인터뷰 활동 ④ 멘토에게 질문 품기

1. 미주는 '시'를 써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진로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를 멘토로 삼아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질문 예시

-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경험에 관해 알려 주세요.
- 관계를 시작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2. 만일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다면, 인터뷰 대상을 '나'로 삼아 봅시다. "나는 나를 대표하는 나야."라고 미주가 말했듯이, 나를 아는 일은 더 큰 세상을 알아 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활동한 인터뷰들을 떠올리며 나에게도 다양한 질문을 건네 봅시다.